한일 배우들 스크린 랑데부

배두나

하정우

'비몽'에서 호흡을 맞춘 이나영(왼쪽)과 오다기리 조.

이나영-오다기리 조 '비몽' 개봉

하정우-사토시 콤비 '보트' 촬영

한일 배우들이 스크린에서 랑데부 한다.

10일 개봉한 '비몽'은 양국의 최고 스타들이 호흡을 맞춰 화제가 된 작품이다. 공지영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후 2년간의 공백 기간을 가졌던 이나영과 '유레루', '메종 드 히미코' 등을 통해 한국 영화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오다기리 조가 주연을 맡은 '비몽'은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감독 김기덕 감독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

'비몽'은 꿈으로 이어진 두 남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신비로운 사랑이야기로 극중 오다기리 죠는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 하는 진 역을, 이나영은 몽유병 상태에서 진이 꾼 꿈대로 행동하는 란 역을 맡았다. 특히 관객들을 다소 불편하게 하는 영화로 흥행면에서는 고전을 면지 못했던 기존 김기덕 감독 영화와 달리 톱스타를 출연시킨 이번 작품이 관객들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을 지 충무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한·일 합작 영화 '린다 린다 린다'에 출연,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두나는 2009년 또 한번 일본 영화에 도전한다.

배두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러브콜을 받았다. 지난 2005년 칸느 영화제에서 14세 소년 야키라 유라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겼던 '아무도 모른다'를 만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최근 막을 내린 부산영화제를 방문, 차기작인 판타지 멜로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배두나를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배두나씨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그녀를 캐스팅했다"며 "영화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마음을 얻고 말을 배워서 사랑하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추격자', '멋진 하루'를 통해 충무로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로 떠오른 하정우와 일본 청춘스타 쓰마부키 사토시는 영화 '보트' 촬영을 마쳤다. 쓰마부키 사토시는 국내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하 조제)에 출연,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배우다.

'내 청춘에게 고함'으로 호평을 받은 김영남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보트'는 '조제'의 시나리오를 쓴 일본 작가 와타나베 아야가 시나리오를 쓴 작품. 일본으로 물건을 밀수하는 한국인 청년과 일본에서 그를 돕는 일본인 청년이 한국 여성을 일본으로 납치하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보트'에는 차수연이 함께 출연한다.

쓰마부키 사토시

우연찮게도 '조제'에 출연했던 여주인공 이케와키 치즈루도 합작영화 '오이시 맨'을 통해 '바람피기 좋은 날', 드라마 '얼렁뚱당 흥신소'의 이민기, 영화 '사랑니', '가족의 탄생'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정유미와 호흡을 맞췄다.

가수 김C가 영화의 원안을 써 화제가 된 '오이시 맨'은 홋가이도로 무작정 여행을 떠난 한국 남자가 일본여성을 만나 짧은 로맨스를 나누고 자신의 고민을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그밖에 일본 한류 열풍의 주역인 '겨울연가'와 '가을동화' 역시 한일합작 영화로 만들어진다.

'겨울연가'의 영화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컬쳐캡미디어가 제작하는 이번 작품에는 드라마 주연 배우인 배용준과 최지우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이글 아이	누명을 쓴 주인공 제리가 핸드폰을 통해 익명의 목소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테러 지령을 받는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남주기 아까운 그녀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의 남자 버전. 톰과 해나의 우정이 사랑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렸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비몽	오다기리 조와 이나영 주연의 슬픈 꿈에 관한 사랑이야기. 김기덕 감독의 열다섯 번째 작품이다.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고고 70	조승우, 신민아 주연의 음악영화. 70년대 야간 통행금지로 숨 죽어 있던 대한민국의 밤을 뜨겁게 달군 전설의 밴드가 돌아온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모던보이	모던보이 박해일과 모던 걸 김혜수의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바빌론 A.D	죽음과 가난이 팽배한 미래의 도시에 사는 전문 킬러들이 정체불명의 조직으로부터 거절 못한 제안을 받는다.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씨너스 전대	
더 클럽	이완 맥그리거가 동료 휴 잭맨을 통해 뉴욕 상류 1% 비밀 섹스 클럽에 가입한 후 의문의 사건이 벌어진다.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미스 페티그루의 어느 특별한 하루	1930년대 영국 사교계를 풍자했다. '노는 물'이 다른 두 여자의 진솔한 교감을 앞세운 이야기.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하남), CGV(상무)	
내친구의 사생활	바람난 남편 때문에 위기에 처한 맥라이언과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네트 베닝의 우정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 15세 이상 관람가.
CGV(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프리머스광주제일, 하미, 엔터	
멋진 하루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떼인 돈을 받기 위해 1년 만에 그를 찾아나서는데. 그들에게 허락된 '불편한 하루'가 담긴 이야기.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헬보이 2	인간과 요괴 사이에서 존재하던 고대의 휴전 협정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요괴 누아다 왕자에 의해 깨진다. 12세 이상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씨너스 전대	

긴박감 넘치는 리얼 액션 스릴러

주목! 이 영화 '이글 아이'

주인공들이 익명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하루 아침에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쓰고 FBI의 추격을 받게 되는 과정을 긴박감 있게 그린 액션 스릴러물.

평범한 청년 제리는 어느날 자신의 계좌에 갑작스레 75만 달러가 들어온 사실을 알고 당황한다. 이후 혼자 사는 아파트에 폭약과 총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러개의 여권이 배달된다.

그는 수상한 전화를 받은 뒤 FBI에 체포되지만 또 다시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에 탈출을 감행한다. 곧 그는 전화 속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똑같은 존재에게 아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레이첼과 거대한 사건 속으로 빠져든다.

'디스터비아' '트랜스포머'의 사이어 라버프와 미셸 모나한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